Present Flow Process of Korean Pub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

▒ 第23回 讀書週間記念 세미너 主題發表

우리나라 圖書流通構造의 實態와 그 向方

韓 馨 泳
서울大 經營大 敎授

1. 圖書流通構造의 變遷과 現況

흔히 一國의 圖書發行種數와 그 出版部數는 그 나라의 文化水準을 판가름하는 尺度가 된다고 일컬어진다. 아울러 全般的인 圖書流通構造의 實態把握은 그나라의 文化的生活水準의 將來趨勢를 豫測하는 基礎資料가 된다고도 傳해진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우는 과연 어떨지 몇가지 統計資料를 動員시킨 바탕위에서 그 實相을 알아본다.

다음의 〈表 1〉과 〈表 2〉는 第1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이 끝난 해인 1966年부터 第3次 經濟開發計劃이 매듭을 짓게된 1976年의 約10年間에 걸친 圖書種別發行 種數와 發行部數의 推移表이다.

적어도 다음 2表에 依할 때 우리 나라 圖書의 出版實績은 多幸히도 크게 伸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66年을 100으로 한 指數上으로 볼 때 1976年의 그것은 量的으로 거의 5倍線에 肉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發行圖書種別에 따라서는 상당한 差異가 있다하더라도 全體的인 觀點에서 본 圖書出版實績은 해마다 꾸준한 成長越勢를 보여 주고 있다. 1973年

〈表 1〉 圖書種別發行種數推移

種別 / 年度別	計	總類	哲學	宗敎	社會科學	純粹科學	技術科學	藝術	語學	文學	歷史	兒童	學習參考	指數
1966	3.102 (2,616)	45 (39)	74 (55)	318 (281)	407 (327)	36 (31)	214 (162)	144 (119)	149 (111)	544 (483)	102 (86)	285 (235)	784 (687)	100
1967	2,216 (1,849)	45 (38)	48 (43)	244 (224)	277 (237)	35 (29)	196 (152)	71 (57)	108 (62)	521 (440)	100 (91)	165 (136)	406 (340)	71.4
1968	2,528 (2,096)	30 (25)	66 (58)	255 (189)	284 (260)	35 (25)	246 (175)	118 (104)	110 (82)	547 (468)	101 (81)	262 (227)	474 (402)	81.5
1969	2,522 (2,177)	39 (32)	55 (45)	286 (245)	359 (233)	30 (26)	174 (130)	144 (110)	85 (65)	561 (507)	74 (54)	283 (270)	422 (370)	81.3
1970	2,593 (2,181)	86 (75)	99 (68)	209 (173)	322 (270)	35 (29)	213 (145)	160 (144)	129 (93)	538 (469)	83 (76)	280 (258)	439 (381)	83.6
1971	2,917 (2,516)	67 (56)	103 (95)	203 (164)	403 (373)	30 (20)	197 (143)	177 (169)	144 (110)	607 (519)	134 (126)	362 (295)	490 (446)	94.0
1972	4,469 (3,912)	52 (50)	179 (159)	344 (274)	625 (573)	53 (44)	361 (268)	154 (143)	223 (188)	1,049 (967)	129 (125)	516 (461)	784 (660)	144.1
1973	7,123 (6,105)	136 (126)	277 (245)	468 (383)	1,014 (859)	83 (61)	682 (515)	343 (322)	340 (281)	1,730 (1,505)	353 (302)	792 (720)	905 (786)	229.6
1974	6,691 (5,794)	139 (128)	305 (260)	435 (323)	842 (751)	84 (66)	671 (514)	387 (351)	249 (79)	1,799 (1,663)	243 (232)	808 (692)	729 (644)	215.7
1955	9,225 (8,096)	228 (192)	337 (286)	601 (512)	1,005 (909)	135 (113)	779 (671)	481 (444)	430 (309)	2,481 (2,185)	211 (196)	1,069 (931)	1,468 (1,129)	297.4
1976	13,334 (9,977)	262 (177)	627 (438)	739 (587)	1,679 (1,348)	172 (140)	1,120 (884)	990 (652)	446 (322)	3,339 (2,271)	302 (230)	1,527 (1,052)	2,101 (1,866)	429.3

註 ①納本에 依함 ②( )內 數値는 初版임 ③1970年 이후는 팜프렛(48面 이하) 除外
④指數는 1966年度(3,102種) 基準
資料：大韓出版文化協會

〈表 2〉 圖書種別推定發行部數推移

種別 / 年度別	計	總類	哲學	宗教	社會科學	純粹科學	技術科學
1966	7,490,570 (6,507,910)	130,250 (120,150)	87,700 (62,200)	860,050 (745,550)	553,450 (446,790)	180,100 (147,800)	242,120 (173,220)
1967	4,941,860 (4,243,960)	105,280 (98,780)	56,400 (44,500)	596,750 (559,750)	429,950 (375,250)	55,350 (52,450)	250,550 (156,450)
1968	5,047,877 (4,379,877)	32,200 (24,700)	80,082 (69,582)	646,650 (590,350)	491,200 (496,600)	54,800 (47,000)	502,100 (408,100)
1969	6,666,382 (5,850,582)	58,500 (54,400)	128,200 (113,200)	1,281,400 (1,018,490)	1,049,774 (1,014,674)	186,500 (162,700)	235,444 (184,944)
1970	4,840,622 (4,027,245)	259,970 (172,570)	186,800 (150,300)	510,050 (351,250)	663,675 (592,748)	33,800 (31,100)	275,900 (180,200)
1971	6,429,726 (5,513,556)	193,000 (90,300)	211,980 (167,980)	734,920 (539,920)	613,650 (581,050)	61,885 (44,900)	245,210 (173,210)
1972	10,858,145 (9,391,045)	82,100 (81,100)	393,400 (377,400)	1,202,316 (790,216)	1,662,250 (1,601,050)	320,600 (165,400)	493,250 (308,250)
1973	15,761,524 (13,648,674)	462,715 (441,615)	490,370 (441,500)	1,629,000 (1,204,400)	1,652,240 (2,450,330)	181,150 (148,000)	816,714 (647,814)
1974	13,465,854 (11,696,504)	381,250 (355,750)	450,000 (405,200)	1,627,750 (929,250)	1,571,590 (1,486,890)	113,600 (88,500)	717,434 (543,134)
1975	24,418,058 (19,321,808)	330,260 (254,760)	466,680 (431,380)	2,213,950 (1,341,750)	1,490,750 (1,378,150)	193,200 (167,400)	877,700 (725,800)
1976	37,636,853 (31,327,478)	377,194 (253,494)	1,044,390 (759,290)	1,856,500 (1,375,400)	2,278,407 (1,963,557)	240,100 (168,150)	1,035,447 (850,047)

種別 / 年度別	藝術	語學	文學	歷史	兒童	學習參考	指數	平均發行部數 部數	平均發行部數 指數
1966	198,100 (155,100)	275,600 (160,100)	828,250 (735,850)	131,450 (116,450)	403,900 (297,400)	3,599,600 (3,345,300)	100		
1967	142,730 (118,730)	238,000 (103,300)	778,150 (683,850)	168,200 (161,200)	268,800 (232,800)	1,851,700 (1,656,900)	65.9		
1968	192,400 (154,900)	168,100 (88,400)	912,445 (802,495)	123,955 (100,905)	398,970 (367,870)	1,444,975 (1,255,975)	67.3		
1969	238,300 (158,500)	126,800 (100,600)	1,089,137 (912,037)	127,310 (83,110)	648,000 (631,500)	1,497,427 (1,416,427)	88.9		
1970	247,700 (224,200)	198,840 (143,150)	891,796 (784,596)	117,353 (111,453)	526,000 (474,500)	928,738 (811,178)	64.6		
1971	395,450 (382,550)	194,720 (142,720)	1,006,402 (897,902)	352,485 (313,000)	787,200 (637,200)	1,632,824 (1,542,824)	85.8	2,204	100
1972	303,287 (292,889)	324,755 (266,555)	1,991,700 (1,819,600)	330,485 (327,585)	1,107,600 (1,035,100)	2,646,400 (2,325,900)	144.9	2,430	110.2
1973	629,605 (602,995)	534,400 (394,400)	2,909,000 (2,520,900)	903,130 (793,720)	1,255,500 (1,127,000)	3,298,300 (2,876,000)	210.4	2,213	100.4
1974	604,700 (569,200)	410,800 (290,900)	3,450,480 (3,216,280)	478,400 (462,400)	1,167,000 (1,026,900)	2,492,850 (2,322,100)	179.7	2,013	91.3
1975	872,100 (853,900)	601,300 (390,600)	4,519,000 (3,939,800)	489,980 (480,180)	1,598,900 (1,472,400)	8,136,238 (7,885,688)	325.9	2,649	120.0
1976	2,017,935 (1,259,810)	752,840 (552,140)	6,439,350 (3,778,600)	512,040 (432,540)	2,207,500 (1,712,500)	18,875,150 (18,221,950)	502.4	2,823	128.0

註 ①納本에 依함 ②( )內 數値는 初版임 ③1970年 이후는 팜프렛(48面 이하) 除外
資料：大韓出版文化協會

의 實績에 比해 唯獨 1974年의 實績이 下落傾向을 보였던 것은 世界的인 「오일·쇼크」와 資源波動의 影響때문이었으며, 그로부터 不過 2年後의 1976年에는 1974年의 實績을 거의 2倍線으로 肉迫하게 된것으로 미루어 보아, 1976年이라는 해는 韓國出版史上 最高의 發行種數와 發行部數를 자랑하는 劃期的인 年代로 記錄되어야 할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결국 3次5個年經濟開發計劃의 最終年度인 1976年을 起點으로해서 우리 나라의 讀書人口가 爆發的으로 增加되고 있다는 端的인 表現일 것이며, 이에 따라 역시 出版業界가 적어도 量的인 發行部數面에서는 檀君以來의 好況을 누리고 있다는 證據나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서 一國의 經濟成長率과 讀書人口의 增加率은 密接한 相關關係에 있으며, 따라서 經濟發展度와 出版業界 景氣는 正比例한다는 在來의 先進國的假說(?)이 우리나라에서도 實地로 立證되었다는 結果로 보아도 옳은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圖書出版部數가 1976年을 頂點으로

해서 急增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讀書를 통한 우리의 文化水準이 國際的으로 向上된 證據로 看做한다면 錯覺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60年代의 出版量과 그 發行部數라는 것이 애당초 國際水準의 最下位만을 맴돌고 있는 狀態였었기 때문이다. 즉 國際水準以下의 起點에서 기껏 5倍가 急增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相對値일 뿐, 國際水準에서 본 그 絕對値는 아직도 하잘것없는 數値에 不過했을 따름이다.

一例로 다음의 〈表 3〉에서처럼 韓國의 경우와 바로 가까이에 있는 日本의 경우만을 比較해 보아도 우선 量的인 面에서의 格差가 아직도 상당하다는 事實에 놀랄 것이다.

〈表 3〉 韓 日 出 版 關 係 比 較

	韓 國	日 本	備 考
出版總種類	13,000種	37,000種	
總發行部數	37,000,000部	729,420,000部	重刊包含
種當發行部數	2,800部	20,000部	
出版社規模	年間 50種以上出版社 50社 1~5種 422社	年間 200種以上出版社 13社 100種以上 25社	講談社(日本)는 年間 1,000種의 新刊을 發行
月刊雜誌發行	?	1,500種 10億部	
週刊雜誌發行	?	56種 9億部	
出版社數	總 1,500 社	約 3,000 社	
書店數	總 3,000 店	約 26,000 店	韓國의 경우「덤핑」書店 約 300 店 包含

資料：韓國=大韓出版文化協會(月刊出版文化)
日本=韓國出版協同組合(日本書籍界研究視察報告記)

이를테면 1976年에 있었던 兩國에서의 圖書總發行部數를 比較해 본다면 韓國의 3千7百萬部에 比해 日本의 그것은 7億2千9百萬部로 集計되고 있어, 그 엄청난 發行總部數의 格差에 驚嘆하지 않을 수 밖에도 없어진다. 더구나 質的인 面에서의 出版總種數에 있어서도 그 格差는 크며, 韓國의 1萬3千種에 比해 3萬7千種이 바로 日本의 경우이다. 비록 出版總種數에 있어서는 겨우 3倍의 差異여서 그다지 格差가 큰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으나, 種當發行部數에서 볼때 전혀 그 樣相은 달라진다. 즉 韓國의 種當發行部數는 1976年의 數値로 볼때 고작 2,800部가 그 平均値며, 日本의 경우 無慮 그 10倍인 20,000部가 그 代表値이다.

물론 日本의 人口가 우리의 3倍를 훨씬 上廻하고도 남음이 있는 狀態라 하더라도 全國的인 書店數가 겨우 3,000店內外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거의 10倍에 가까운 書店數(約 26,000店)를 保有하고 있다는 事實만에 依해도 人口比例的인 比例는 전혀 蛇足일 수 밖에는 없어진다. 그 뿐만 아니라 出版社規模에 있어서도 우리의 그것은 年間 50種 以上의 出版社가 기껏 50個社인데 比해 日本의 경우에는 年間 100種以上의 大型出版社가 38개社(그중 年間 200種 以上 出版社가 13個社)이며, 日本의 著名出版社인「講談社」는 1,000種以上의 新刊을 해마다 出版하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雜誌發行面에서도 엄청난 格差가 있어 韓日兩國에 있어서의 出版關係를 比較해 본다는 事實自體가 애당초 時期尙早的이며 徒勞的인 勞力일 따름이며, 차라리 東南亞諸國의 어느 總計와 比較함이 현명한 일인지도 모를 일이다.

어찌되던 圖書의 出版種數와 種別發行部數는 韓日兩國間에서 엄청난 格差가 있으면서도 圖書의 平均價格(定價)은 奇異하게도 엇비슷한 線을 平行하고 있어 적어도 圖書의 價格面에서는 國際水準格이라는 느낌이다. 例컨대 다음의 〈表 4〉는 韓日間 一般圖書의 種當平均價의 比較表이지만 兩國間價格表는 별로 顯著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4〉 韓日間圖書種當平均價對比表

國別 / 年別	韓 國	日 本	
		Yen 表示	Won 表示
1976 年	₩ 1,368	¥821	₩1,560
1977 年	₩ 1,585	?	

資料：〈表 3〉와 같음.

이것은 韓國의 出版業界가 아직도 大量生産과 大量販賣를 통한「規模의 利益」을 追求하지 못한 體制下에 있기 때문이며, 種別發行平均部數가 고작 2,800部인 狀態에서는 어쩔 수 없는 價格高일 수 밖에는 없다. 그러나 2,800部와 20,000部의 發行部數 사이에서 빚어질 수 있는「規模의 利益」上 差額보다도 韓日兩國의 生活水準과 所得水準上의 格差가 보다 더 크다는 事實을 勘案할 때 種當 平均價는 그래도 日本의 平均價以下에서 머물러 있어야 常識이다. 그런데도 유독히 圖書의

定價面에서 韓日兩國이 사이좋게 平行線을 걷고 있다는 事實엔 相當한 原因이 있어야 할 것이다. 不幸히도 正確한 統計資料가 없어 (求得할 길이 없어) 자세하지는 않으나, 日本의 出版業界와 比較해서 種當發行利益이 응당 韓國側에 有利하거나, 아니면 著者에의 印稅支拂額이 國際水準以下거나, 둘중 하나가 그 原因일지도 모를 일이다. 하긴 自動車나 電子製品을 비롯한 우리나라 工産品의 大部分이 高價의 技術과 原資材導入에 의해 그 販賣가 항상 國際水準以上線을 疾走하고 있어야 한다는 論理가 國內圖書의 價格에도 똑같이 適用되어야 한다고 主張하는 理由라도 있다면 勿論 此限에 不在일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極히 平面的인 計算에만 依해 다음의 〈表 5〉와 〈表 6〉에서 類推할 수 있는 것처럼 一例로 1972年까지의 圖書製作費가 모든 面에서 거의 2倍以上이 引上되었는데도 種當平均價가 72年의 921원에서 77年의 1,585원으로 겨우 73%밖에 引上効果가 빛어지지 못함으로써 出版業界의 平均利益이 훨씬 下落趨勢를 示顯하였다고 主張한다면 역시 錯覺이다. 왜냐하면 비록 圖書製作費의 引上比率만 큼의 種當 平均價의 引上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72年부터 76年까지의 總發行部數가 無慮 3.7倍(約 1千萬部에서 約 3千7百萬部)나 急增하였다는 統計 (〈表 2〉 參照)로 미루어 보아 大量生産에서 오는 이른바 「規模의 利益」은 出版業界의 平均利益을 72年의 水準에서 보다도 훨씬더 끌어 올려놓는 原動力이 된 것만은 틀림없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觀點에 立脚한다면 오늘날의 種當平均價는 現在의 水準에서 더 下向 策定될 수도 있는 「뉘앙스」를 풍긴 對象의 것으로 짐작해도 相關은 없을 것이라는 느낌이다.

〈表 5〉 圖書製作費引上對比(72/77)

區分 \ 年度別	72年	77年	引上比率(%)
原稿料	150원	300원	100
60 中質紙	3,050원	7,000원	129.5
100 모조紙	6,200원	13,357원	115.4
100 A 아트	9,800원	18,098원	84.7
布크로스 1마	200원	625원	212.5
紙크로스 1마	50원	125	150
組版 (菊)	500원	1,300원	160
紙型	80원	180원	125
鉛版	50원	80원	60
本文印刷(1,000部)	1,800원	2,900원	61.1
게스工賃 (菊判個當)	3.50	8	128.5
製冊	6錢	11錢	83
廣告 1단 1cm	1,200~1,600	5,000	257.1

資料：大韓出版文化協會

한편 圖書의 流通(供給) 經路로 볼 때 그 多岐, 零細性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밖에도 없어진다. 즉

〈表 6〉 年度別一般圖書種當平均價

72年	921	75年	1,276
73年	1,060	76年	1,368
74年	1,241	77年	1,585(72年基準 72%增)

資料：〈表 5〉와 同一

다음의 圖書流通經路圖는 그 代表的인 例이지만, 世界에 그 類例도 없는 東大門市場의 덤핑書店이 우리나라 圖書의 流通經路에 介在하게 됨으로써 빚어지는 流通構造의 混亂과 亂脈은 그 極에 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그림에서 ⑨번의 經路가 바로 그것이지만, 圖書의 덤핑뿐만 아니라 海賊版과 不良圖書의 出版·販賣까지를 자행하게 됨으로써 惹起되는 廢端은 매우 深刻하다는 表現을 빌려야 할만치 그렇게 深刻한 것만은 사실이며, 이미 韓國出版業界의 고질적이자 암적인 存在가 되어 온지도 벌써 오래다. 원래 이 圖書덤핑經路는 群少出版社의 經營不振에 따른 資金難으로 因해 投資된 圖書만을 專門的으로 取扱하다가 派生하게 된 韓國的圖書流通經路의 典型이라 할 수 있으며, 그 是正을 위해서는 後述하게 될 再販賣價格維持制度가 導入되거나, 其他 政策的인 對策이 時急히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以上 몇가지 統計資料에 의해서만 導出되어질 수 있는 現況面에서의 骨子를 간추려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우리 나라 圖書出版種數와 그 種別發行部數는 비록 70年代에 들어서서 急激히 增大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開發途上國의 範疇를 벗어나지 못한 테두리에서 맴돌고 있으며,

② 지금과 같은 增加趨勢로 계속 急增해 나간다면 겨우 80年代에야 中進國水準에서 脫皮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며,

③ 國民所得과 生活水準에 符合치 않는 高價의 現行圖書平均價는 大量生産(大量供給)을 통한 「規模의 利益」으로 下向調整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단 그것으로 因해 讀書人口가 增加되어 나갈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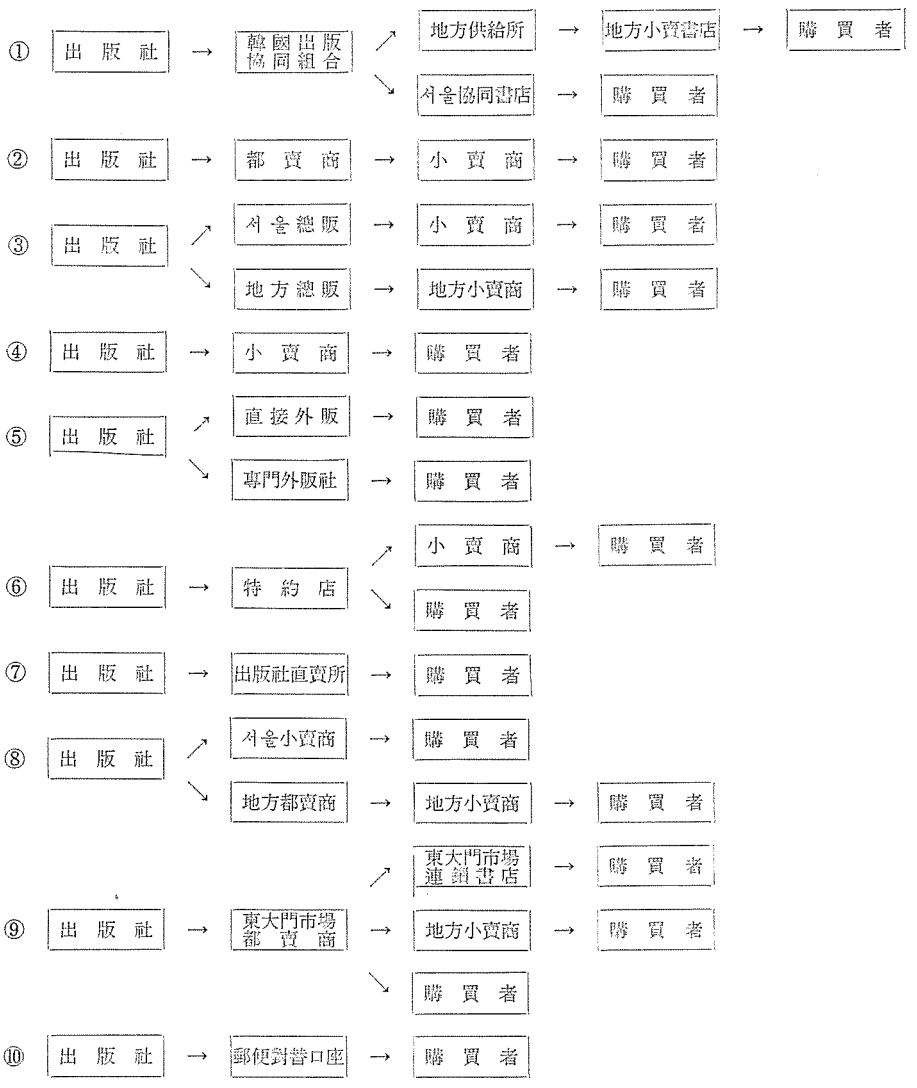
④ 長期的인 眼目에서 圖書出版을 통한 適正企業利潤은 著者와 讀者를 위한 바탕위에서의 廉價販賣爲主的인 思考方式에서 摸索되어져야 마땅하며,

⑤ 圖書流通構造上의 암적인 存在인 덤핑市場의 抹殺은 韓國出版業界에 주어진 70年代의 最大課題의 하나여야 할 것이다.

2. 圖書流通構造의 改善的 向方

비록 平面的이며 微視的인 諸般資料에 관한 分析과

〈圖 1〉 우 리 나 라 圖 書 流 通 經 路 圖



資料 : 〈表 6〉과 같음

評價의 卓上的 結果이긴 하되 대체로 以上과 같은 우리나라 圖書流通構造의 變遷과 現況이 把握되어진 마당에 있어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浮刻되어진 問題點에 따라 앞으로의 改善的인 向方이 摸索되어져야 論理的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圖書流通構造의 一部라도 改善되어질 수 있는 바탕이 생겨 난다면 多幸이라는 뜻에서 여러가지 角度에 立脚한 다음과 같은 改善的向方을 羅列해 본다.

①出版社라는 이름의 供給者的 觀點에서

一國의 後進的 圖書流通構造가 改善되기 위한 가장 根本的인 原動力은 圖書流通의 핵을 擔當한 出版業界에 依해 發揮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商品의 流通構造가 그렇듯이 供給者로써의 個別 企業의 流通活動 如何 그 質的이며 量的인 形成에 多大한 影響을 直接的으로 끼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個別企業이라는 이름의 出版社가 適切한 質과 量의 圖書(Product)를, 適切한 價格(Price)으로, 適切한 經路(Place)를 통해 適切한 方法(Promotion)으로 供給할 때 비로소 一國의 圖書 流通構造가 正常的인 機能을 發揮할 수 있는 바탕이 생겨난다는 뜻에서이며, 또 그것이 곧 現代經營學에서 말하는 이른바 圖書마케팅의 眞髓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4P」야말로 圖書流通構造의 改善을 위한 個別企業的指標일 것은 물론이지만 다만 이 모든 것이 出版社의 良心(出版社의 良心的인 企業活動)에만 맡겨져야할 要素라는 點에 問題의 핵심이 있게 된다. 즉 低質圖書의 出版供給을 排除하며, 大量供給을 通한 原價高를 抑制하며, 덤핑經路의 出現을 防止하고 참된 코뮤니케이션(廣告나 PR)의 傳達을 通해 讀者에게 訴求하게 하는식의 圖書 마케팅은 어디까지나 個別企業의 良心的 活動의 對象일 뿐이지 전혀 强壓的이거나 政策的인 强要의 所産으로 나타나는 副産物的 對象은 아닌 것이다.

때문에 出版社라는 營利企業에 依해 導出되어질 수 있는 圖書流通構造의 改善策은 오직 經營合理化를 바탕으로 한 圖書마아케팅의 良心的인 追求(올바른 4P의 追求)에 依해 마련되어질 따름이지 그 以外의 아무것도 아니다.

② 書籍商이라는 이름의 流通機關的 觀點에서 供給(生産)을 擔當하는 出版社와 더불어 그 販賣(流通)를 擔當하는 書店은 流通構造上의 2大 핵을 이루는 마아케팅 機關이기 때문에 書店이 圖書流通構造面에서 다하게 되는 役割도 크다. 出版社가 제아무리 올바른 「4P」的인 마아케팅要素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最終消費者(讀者)와 直結되어 있는 書店의 能動的인 協力과 合理化活動의 展開없이는 流通構造의 改善이란 都是 있게될 까닭은 없다. 따라서 流通機關으로서의 書店의 立場에서도 供給者(出版社)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適切한 質(低質圖書의 排擊)과 量(充分한 具色)의 圖書를 適切한 價格(廉價販賣)으로 適切한 經路(덤핑書店의 排除)를 통해 適切한 方法(서비스의 改善)으로 讀者에게 販賣할 때 비로소 一國의 流通構造가 改善되어질 수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4P活動의 올바른 展開와 함께 供給者(出版社)와 販賣者(書店) 사이에서 定價販賣를 維持함으로써 덤핑販賣나 其他 流通秩序의 문란을 막기 위한 이른바 再販賣 價格維持制度(再販制度)의 導入을 考慮해 보는 일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浮刻되어진다. 그것은 大部分의 先進國에서의 先例가 그렇고 또 日益橫行하기만이 일쑤인 덤핑經路의 抹殺과 이를 통한 圓滑한 流通構造의 健全化를 위해서는 적어도 現時點에서는 단하나 再販制度의 導入밖에 별 도리는 없을성싶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再販價格은 전혀 價格「매카니즘」을 無視해서 企業에 依해 一方的으로 決定되어지기가 通例일 것이기 때문에 消費者 讀者 保護라는 大局的인 觀點에서의 政策的 規制가 그 前提여야 함은 물론이다. 例컨대 現行 公正去來法의 테두리에서 規制되어야 할 것은 당연하지만 政策的인 面도 考慮된 再販制度의 導入이 우리나라 圖書流通構造의 改善에 意外의 效果를 빚게하는 原動力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또 그러한 再販制度의 導入을 前提로 해서 小賣商마진 (書店利潤)이 더욱 上向的으로 策定되어야 옳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書店數가 기껏 3,000內外(〈表 3〉 參照)에 不過하며 日本에서의 그것은 무려 26,000店이라는 事實보다도 過去 몇년 동안에 우리나라 書店數라는 것이 增加趨勢에 있기는 커녕 도리어 後退現象만을 빚고 있다는 事實은 企業으로서의 書店이 적어도 우리 나라에서는 形成되지 못하고 있다는 證據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가지 理由가 운데에서도 우선 書店의 마진幅이 적다는 것이 바로 그 중 큰 理由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看做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出版社의 利幅을 줄이고, 도리어 書店의 마진幅을 增大하여 줄 때 우리 나라에도 書店 붐이 일지 말라해도 일 수밖에 없는 原因이 될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 경우 出版社는 해마다 圖書發行種數와 種別發行部數가 急增추세에 있기 때문에 大量生産과 大量供給에서 오는 「規模의 利益」으로 줄어든 利幅만큼을 「카버」하거나 더 나아가서 經營合理化에 加一層의 努力을 기울일 때 그러한 환상(?)이 實際로 具現될 수 있다고 믿어야 지당할 것이다.

③ 政府라는 이름의 政策的인 觀點에서

제 아무리 出版社와 書店에서의 自發的인 流通構造改善努力이 잇달아도 이를 뒷받침 하여 주는 政策的인 支援없이는 都是 그 效果가 最大로 거두어질 수 있는 바탕은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開發途上國이라는 立場 以外에도 우리의 國民經濟나 모든 側面이 아직도 政策依存型으로 그 基盤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觀點에서도 우리나라 圖書流通構造의 改善을 摸索하기 위해서는 出版社나 書店이라는 이름의 個別企業的 活動과 함께 政府라는 이름의 積極的인 育成·支援策이 바로 絕對的일 수 밖에도 없어진다. 바로 다음에 羅列된 項目들이 直接·間接으로 介入할 수 있는 (또 介入해야 할)長·短期的 眼目에서의 政策的 手段들이라 할 수 있다.

1) 圖書供給網의 整備支援

流通市場의 문란은 바로 大單位都賣機構의 不在現象인 탓으로 보고 業界(出版社, 書店 및 關聯業者)의 共同投資에 依한 大型都賣商(販賣會社)의 設置를 推進하기 위한 政策的인 支援. 아울러 地方書店에의 稅制上 支援, 地方圖書館網의 擴充등에 대한 政策的 配慮

2) 讀書環境의 改善的 支援

出版種數나 種利行部數의 增加나 書店網의 擴充은 오직 讀書層의 急增에 依할 길 밖에 없어 이를 위한 讀書環境의 改善的 支援이 時急, 이를 위해서는

① 公共圖書館의 增設과 豫算의 大幅增額(적어도 人口 10萬名當 1個館)

② 大大的인 讀書캠페인

③ 圖書流通機關의 系列化助成

④ 原稿料 印稅등 活潑한 著作活動與件의 助成

⑤ 低質圖書流通의 規制策 마련

⑥ 合理的인 敎科書流通構造의 摸索과 그 支援策등이 時急히 考慮되어야 한다.